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2월 미 일자리 31만 1천개 늘어...실업률은 3.6%로 올라
- Bloomberg: 옐런 장관, “인플레 하락이 행정부 우선 목표, 연방 부채 한도도 올려야”
- WSJ: 바이든 예산,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 비용 상승은 그대로

#### [미국 금융]

- Reuters: 달러 수요 급증... ‘은행 혼란’이 투자자들 혼든 탓
- NYT: 투자자들, SVB 은행 사태와 오늘 일자리 보고서 예의 주시

#### [뉴욕/뉴저지 교통]

- NBC: 뉴저지트랜짓 App에서도 현금으로 티켓 구입 가능

#### [미국 사회]

- NYT: 미국에서 가난은 왜 계속될까?

#### [글로벌 경제]

- CNBC: 중국 소비지출, 올해 하반기가 돼야 회복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미 의류 기업들, “중국 없이는 앞날 없다”
- WSJ: LP판이 CD 판매 앞섰다...1987년 이후 처음
- WSJ: 테슬라, EV 급속 충전기 타사 차량에도 개방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바로 고침]

- Bloomberg: 미 EV 평균 주행거리 거의 3백만 마일 돌파 >>> 3백마일 돌파

###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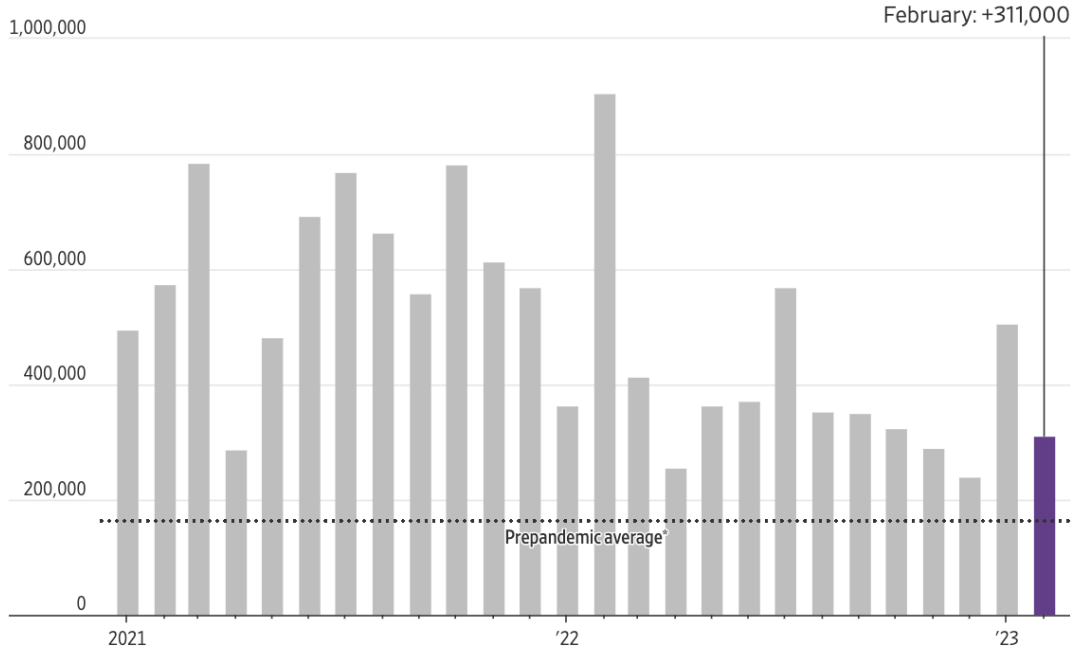
#### WSJ: U.S. Employers Added a Solid 311,000 Jobs in February

#### 2월 미 일자리 31만 1천개 늘어...실업률은 3.6%로 올라

- 연방 노동부가 이번주 금요일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용주들은 2월 31만 1천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50만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던 1월보다 크게 줄었다. 실업률은 3.6%로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올해 들어 둔화되었다.
-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면서 강력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레저, 환대, 소매,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 성장이 계속되면서, 1월 새로운 일자리의 수가 구직중인 실업자 수의 거의 두 배였다. 강력한 고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
- 한편 노동 참여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25~54세 사이에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의 비율이 2020년 2월 수준을 조금 밑

돌았지만, 현재는 특히 여성 노동력이 회복되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이는 비어 있는 일자리와 빠르게 오르는 임금을 상쇄하며 인플레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 Nonfarm payrolls, monthly change



\*2019 average.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 Unemployment rate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 Bloomberg: Yellen Affirms Inflation Goal, Warns Lawmakers on Debt Ceiling

엘런 장관, “인플레 하락이 행정부 우선 목표, 연방 부채 한도도 올려야”

- 옐런 연방재무장관이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출석 전에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연방부채 한도와 정부 지출을 놓고 양당이 설전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6조9천억달러의 예산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언급한 것이다.
- 그녀는 “헤드라인 인플레이가 둔화세를 보이긴 하지만 행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연방 채무 불이행은 경제적 재정적인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공화당은 연방부채 상한선을 올려주는 대가로 예상 앞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소비자 물가가 치솟은 건 바이든 행정부의 팬데믹 부양책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WSJ: Biden's Budget Shows the Rising Cost of Leaving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Untouched

#### 바이든 예산,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 비용 상승은 그대로

- 공화당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에 사회 안전망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
-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 두가지 프로그램을 삭감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비용은 점차 올라가게 된다는 것. 오는 2033년 까지 이 두개 프로그램 비용은 GDP의 10.5%를 점유하고,작년보다 2.7% 더 많다.
- 여기다 이들 프로그램 외에 정부 이자 비용까지 합쳐친 3개 영역의 비용은 올해의 경우 GDP의 4.1% 더 지출된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Reuters: Dollar demand picks up sharply as turmoil in banks

#### 달러 수요 급증... '은행 혼란'이 투자자들 흔든 탓

- 오늘 금요일 통화 파생시장(currency derivative market)에서 달러 수요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은행 주식들이 흔들려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 3개월 유로/달러 통화 기준 스왑 스프레드는 12월 14일 이후 가장 높은 -17 베이시스 포인트로 거래 되었다. 현금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한 셈이다. 은행 주식 폭락은 아래 기사 참조.

Reuters 기사

## NYT: A Bank Run Jolts Markets as Investors Weigh the Jobs Report 투자자들, SVB 은행 사태와 오늘 일자리 보고서 예의 주시

- 투자자들이 오늘 금요일 2개 방향으로 끌려가는 형국이다.
- 캘리포니아의 작은 은행인 SVB 파이낸셜그룹의 위기 때문에 은행 부분의 건전성에 우려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오늘 금요일 발표된 일자리 데이터는 다소 희망을 갖게 했다는 것.
- 우선 오늘 일자리 발표에 대한 반응. 투자자들은 그동안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입장에 우려를 표해왔으나, 오늘 발표된 2월 일자리 보고서를 보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 많은 미국인이 일터로 돌아 가면서 임금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연준 금리 인상 조치가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라는 것
- 한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그룹이 채권 매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22억달러 이상의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은행주의 낙폭이 심했었다. SVB 파이낸셜은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모든 증권을 매각했고, 18억이 손실을 보았다. 이로 인해 4개 초대형 은행들의 주가까지 급락했었다.

NYT 기사

### [뉴욕/뉴저지 교통]

## NBC: NJ TRANSIT App Lets Riders Buy Passes with Cash 뉴저지트랜짓 App에서도 현금으로 티켓 구입 가능

- 뉴저지트랜짓은 “앱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때도 현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예전에는 해당 앱을 통해 열차나 버스 승차권을 서려면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정보를 넣어야 했는데, 크레딧 카드나 계좌나 데빗 카드가 없는 승객들을 위해 현금 충전 방식인 ‘캐시 인 앱’이라는 새로운 승차권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것.
- 앱에서 현금으로 승차권 구입하려면, 7-Eleven, Walgreens, Family Dollar, CVS매장을 찾아 현금을 내고 예를 들어 20불을 내면 20불어치 충전해준다.

NBC 기사

### [미국 사회]

## NYT: Why Poverty Persists in America 미국에서 가난은 왜 계속될까? By Matthew Desmond(프린스턴 대학 사회학 교수)

- 미국의 저소득층 문제는 50년 동안 분석한 결과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푸드 스탬프 등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즉, 사실상 돈을 풀어 놓아도 회

복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 현재까지 일례로 근로자 권익을 위한 노조 결성도 특정 매장에만 시도할 수 있지 그 회사의 전국적인 모든 매장에서 동시에 노조 결성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 저소득층의 신용 접근도 힘들고 크레딧, 크레딧 카드가 없다보니 체크 캐싱이나 고리대금업자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주거지도 중요하다. 세입자의 임금이 오르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재빨리 오른다. 구조적으로 저소득층이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 3가지 즉, 노동 착취(exploitation), 금융 착취, 그리고 거주지 착취가 여전하다.
- 해결책은 노동착취 해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파워를 주는 것이다. 노조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공 주택 주택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더 많은 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
- 은행들이 매년 가져가는 수십억불을 체납 이자 ‘강탈’도 중지해야 한다. 아니면 벌금을 줄여야 한다. 주정부들은 체크 캐싱이나 월급 담보 형식의 융자 기관들(payday-lending institutions) 등을 통제해야 한다.

NYT 기사

### [글로벌 경제]

#### **CNBC: Consumer spending in China isn't surging back yet, companies say**

##### **중국 소비지출, 올해 하반기가 돼야 회복**

- 전자상거래 업체 JD.com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자 지출은 불균형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나 되어야 회복 속도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소비자들의 소득과 신뢰 지수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통제와 부동산 침체가 지난해 중국 소비자와 기업을 무겁게 짓눌렀다.
- 하지만 업종에 따라 회복이 시작된 곳도 있다. 아디다스는 지난해 중화권 매출이 36% 급감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다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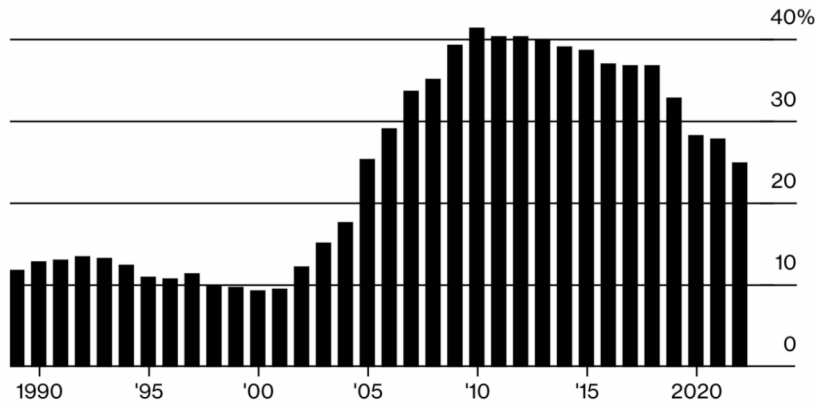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US Apparel Companies Can't See a Future Without China** **미 의류 기업들, “중국 없이는 앞날 없다”**

- 대부분의 의류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던 미국 의류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관세 인상, 공급망 혼란, 코로나 제로로 인한 공장 폐쇄,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업계는 중국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했으나, 의류, 신발, 가정용품과 같은 저숙련 기술의 저수익 제품군에서 양질의 생산이 가능한 기계나 노동력을 가진 공장이 중국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 힘겹게 중국이 아닌 곳에 대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직물, 부품 등 원료를 중국 외에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미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1백억 달러 규모의 의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2위인 베트남의 약 두 배이다. 또 중국은 여전히 미국인들이 구매하는 가구, 침구, 램프, 완구, 스포츠 장비의 최대 공급원이기도 하다.

### Share of US Textile and Apparel Imports From China

By value



Source: US 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

Bloomberg 기사

### WSJ: Vinyl Records Outsell CDs for the First Time Since 1987 LP판이 CD 판매 앞섰다...1987년 이후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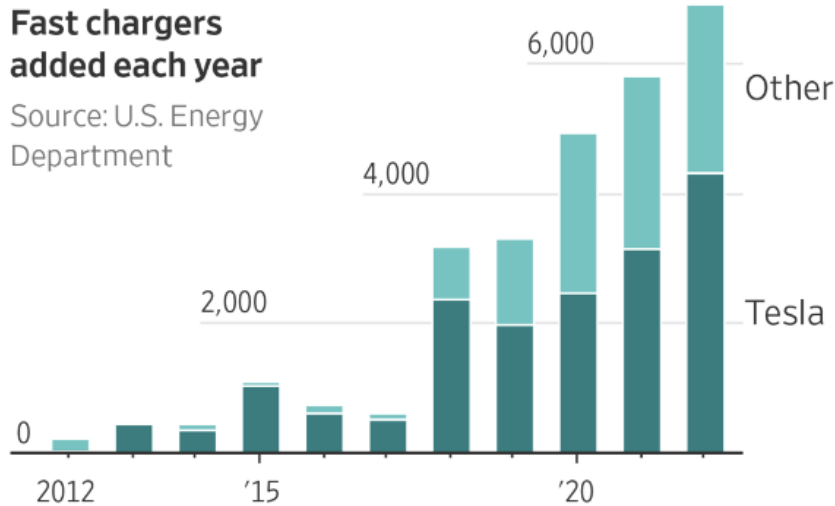
- 미국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LP 앨범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CD 보다 많이 팔렸다. LP는 4천1백만 장, CD는 3천 3백만 장이 팔렸다.
- 이는 LP의 우수한 음질을 선호하는 인디 록 팬들과 레코드 판을 돌리는 향수에 이끌린 젊은 층에 의해서 최근 LP 산업이 부활한 데에 따른 것이다.
- LP 레코드의 수익은 작년 12억 달러를 넘으며 17% 성장했는데, 2년 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 LP는 현재 CD, 카세트, DVD 등 물리적 방식 수익의 71%, 전체 음반 업계 수익에서 7.7%를 차지하게 되었다. Spotify, YouTube를 통한 스트리밍이 전체 업계 수익의 84%를 차지한다.

WSJ 기사

### WSJ: How Tesla Opening Its Supercharger Network Alters the EV Charging Map

#### 테슬라, EV 급속 충전기 타사 차량에도 개방한다

- 미국 자동차 구매자들이 점차 전기차를 많이 선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 네트워크의 부족이 더 많은 EV의 채택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테슬라는 테슬라가 아닌 EV에게도 일부 급속 충전기를 개방하기 시작하고 있다.
- 미국은 장거리 주행에서 충전 부스가 부족할 때 운전자들의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약 30분만에 완충이 가능한 급속 충전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테슬라는 내년 말까지 모든 종류의 EV에게 3천 5백여개의 충전 장치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테슬라 전체 슈퍼 충전 네트워크의 약 20% 정도. 테슬라의 충전기가 다른 EV에게 개방된다면 테슬라의 충전기 건설에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Source: U.S. Energy Department

WSJ 기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SVB는 빙산의 일각?" ...美금융주 급락에 월가 위기감 확산"

"금융권, 고금리 여파로 보유자산 매각 난항 예상"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

미국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의 자산 투매로 촉발된 미국 금융주의 급락세 속에 현 상황이 더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월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SVB는 210억 달러(약 27조8천억원) 규모 채권 포트폴리오 매각으로 생긴 손실 18억 달러(약 2조3천800억

원)를 매우기 위해 전날 17억5천만 달러(약 2조3천100억원) 상당의 매도가능증권(AFS·만기 전 매도할 의도로 매수한 채권과 주식) 처분에 나섰다.

문제의 채권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미 국채로 평균 수익률이 1.79%에 그쳐 현 10년물 미 국채 금리 3.9%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